

내년 복지예산 10% 증액 추진... 120조원 육박

기초노령연금·4대 연금 지출 증가

당정, 국회의원 세비는 동결키로

정부와 여당이 내년 복지 예산을 10% 이상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과 4대 연금 등 의무지출이 늘어나는 데다 에너지 바우처 등 새로운 서민 지원도 시작되면서 내년 복지 예산은 120조원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의 경제 활력을 높이고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둔 내

년 예산안의 윤곽을 이번 주 중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액을 지난해보다 10%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경제 회복이 더딘 속도로 진행되면서 서민과 저소득층이 겪는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복지 분야 예산을 10% 이상 늘려 118조~120조원 상당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내년 전체 예산·기금 지출 증가액을 5%대로 논의하는 점을 감안하면 복지 예산 증가

율을 이보다 2배 더 가파르게 가져가는 셈이다. 복지 예산 증가율이 두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민생 안정 차원에서 28조9000억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집행되면서 복지 예산은 68조8000억원에서 80조4000억원으로 16.8% 급증한 바 있다. 내년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이 이처럼 커지는 것은 기초노령연금과 4대 연금 등 의무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기초노령연금 지출은 올해 5조2000억원에서 내년 7조7000억원으로, 국민·사학·공무원·군인연금 지출액은 올해 36조4000억원에서 내년 40조3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

고 있다. 정부는 또 저소득층 지원 차원에서 내년에 처음으로 에너지 바우처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가스·등유·연탄 등을 살 수 있는 일종의 쿠폰으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 가운데 노인, 아동, 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에 보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동네 병·의원에서 어르신 대상으로 독감, 어린이는 A형 간염 예방 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의원들의 세비는 동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사병들의 월급은 15% 인상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시, 붕괴위험 평화맨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키로

광주시가 아파트 기둥 균열로 붕괴 위험이 높은 북구 중흥동 평화맨션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10일 “기둥 균열로 한달 넘게 대피 중인 평화맨션 입주민들이 재건축이 불가피하다 건의함에 따라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화맨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기둥 2개가 파열된 평화맨션 B동은 물론 A동도 안전진단에서 재건축이 필요한 재난위험시설인 E등급으로 판정됐다”며 “172세대 500여명의 이재민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위험을 당해 자력으로 해결해 나갈 방법이 없다”며 특별재난 지역 선포를 정부에 건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추석명절도 집 밖에서 보냈다고 밝힌 비대위는 “B동 주민들은 구에서 소개한 원룸이나 자녀 학교 인근 등에 월세를 내고 임시거주하거나 친척집 등에 뿔뿔이 흩어져 생활 중이며 A동에도 조만간 대피령이 내려질 예정”이라며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 공포 속에서 비용 부담까지 늘면서 주민들의 생활은 파탄을 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대형사고나 자연재해로 정부 차원의 사 고 수습이 필요한 경우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으며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지정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 대책 및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북, 정권수립 66주년... 김일성·김정일 동상 참배 /연습뉴스

전남도 산하기관 ‘살생부’ 내달 나온다

경영진단 TF 활동계획 보고회

민선 6기 구조조정 로드맵 확정

전남도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들의 구조 조정 방안이 이르면 다음달 초 제출될 전망이다. 이 구조조정 방안에는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이 설립 취지에 맞게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고 이에 따른 기능·조직 재편 방향이 담길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남도는 최근 김영선 행정부지사, 송상락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진단 TF 활동계획 보고회를 갖고 민선 6기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구조조정 로드맵을 확정했다. 이 로드맵에 따르면 전남도 담당 실·과 직원 등 내부 공무원, 전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교수·회계사·변호사 등 외부전문직으로 경제산업·문화·복지여성·해양수산 등 4개 분야 TF를 구성한다. 이 4

개 TF는 10월 초 분과별 보고회에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 이를 행정부지사 등이 총괄조정한 뒤 11월 초 이낙연 전남도지사에 보고하는 일정을 마련했다. 구조조정 대상은 전남도의 유일한 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와 출자·출연기관 19곳 가운데 파격직원이 3명 이하거나 최근 설립된 남도장학회, 명랑대접 기념축제사업회 등 6곳을 제외한 13곳이다. 규모가 큰 전남개발공사는 외부에 용역을 발주하고, 해양수산과학원이 포함되면서 실제 4개 분야 TF가 다루는 기관은 모두 14곳인 셈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며 “과부하를 보이고 있거나 인력이나 시설 미흡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곳에 대해 기능을 재편하면서 도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도록 하는 것이 이번 구조조정의 목표”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2018년까지 일자리 7만개 만든다

민간부분 광주형 일자리 1만개 창출

광주시는 오는 2018년까지 민간 부문 1만개, 공공부문 6만개 등 총 7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2018년까지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자동차산업밸리 조성, 가전·로봇 등 전자산업, 그린에너지 산업, 문화콘텐츠산업, MICE 산업 등 지역의 주력 또는 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민간 부문에서 광주형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해 낸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시비 재정을 투입해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 워킹푸어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 부문에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 6만개를 만들어 내기로 했다. 시는 또 전국에서 인구대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사회적 조직(629개)을 기반으로 민선 6기 ‘사회적 경제 모델도시’를 구축해 신규 사회적 기업 확대,

광주공동체에 기반한 마을기업 육성, 협동조합 모범도시 등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 경제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사회적 경제조직의 발굴을 확대하고, 판로 개척과 경영 컨설팅 등도 선진 시스템을 도입·운영하기로 했다. 박정석 광주시 일자리정책담당관은 “민선 6기 시장 목표인 자존감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행정적 지원은 물론 노사노련, 학계, 청년, 여성 등 범시민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사회통합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범시민 운동을 전개하는 등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4월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산업체, 대학, 특성화고, 연구기관과 관련단체, 온라인으로 참여를 신청받은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일자리 실태 파악과 대안 모색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은퇴도시·유기농생태마을

전남도, 브랜드 이름 공모

전남도는 10일 “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의 도정 방침을 담고 ‘은퇴도시’와 ‘유기농생태마을’ 사업별 특성을 잘 반영한 브랜드 이름을 발굴하기 위해 전국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은퇴도시와 유기농생태마을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5월부터 브랜드 디자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은퇴도시 조성사업은 최근 도시화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가 본격화됨에 따라 신개념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19년까지 장흥, 담양, 무안 등에 선도적으로 조성된다. 또 유기농생태마을은 생태계 복원과 공동체 의식 함양, 생산비 절감, 소득 안정, 젊은 세대 귀농 유인 등 농촌을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현재 20개소가 지정돼 운영 중이다. 공모는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제22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가 정남진(正南津) 장흥에서 개최됩니다.

2014.9.25(목) ~ 9.26(금)/장흥실내체육관 등 각 경기장

- 개막식 및 축하공연 : 9.25(목) 10:00 ~
- 시군 한마음 축하공연 : 9.25(목) 19:00 ~
- 경기종목 : 24개 종목 (정식종목 13, 시범 5, 체험 6)

주최 |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주관 | 장흥군/장흥군장애인체육회/가맹경기단체 후원 | 전라남도, 문화체육관광부

바다낚시대회·전어축제
2014. 10. 2 ~ 10. 4

천관산익세계
2014. 10. 5

키조개축제
2014. 10. 9 ~ 10. 12